현대불교
2020년 4월 29일 수요일 제 1291 호

COVID 19
셀프힐링

길 위에 있는 동안 행복하다

둥근 우주같이 파 꽃이 피고
살구나무 열매가 머리위에 매달릴 때
가진 것 하나 없어도 나는
걸을 수 있는 동안 행복하다
구두아래 길들이 노래하며 밟히고
햇볕에 돌들이 빵처럼 구워질 때
새처럼 앉아있는 후박 꽃 바라보며
코끝을 만지는 향기는
비어 있기에 향기롭다
배드민턴 치듯 가벼워지고 있는
산들의 저 연둣빛
기다릴 사람 없어도 나무는
늘 문밖에 서있다
길들을 사색하는 마음속의 작은 창문
창이 있기에 집들은 다 반짝거릴 수 있다
아무것도 찌르지 못할 가시하나 내보이며
찔래가 어느새 울타리를 넘어가고
울타리 밖은 곧 여름
마음의 경계 울타리 넘듯 넘어가며
걷고 있는 두 다리는 길 위에 있는 동안
행복하다.

글=김재진 시인 · 사진=박재완 기자

〈셀프힐링 관련 특집 2 · 3면〉